

2. 묘

고양시



대빈묘(大嬪墓)

1. 연혁

묘 주 : 경종 사친 옥산부대빈(玉山府大嬪) 장씨

위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지정번호 : 사적 제198호

봉묘연대 : 1701년(숙종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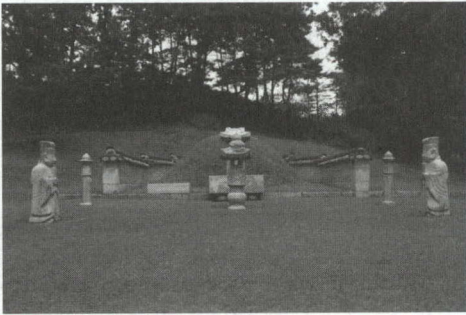
전묘연대 : 1970년

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을 지나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으로 접어들면 바로 오른쪽에 해발 235m의 응봉 산자락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아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서오릉에 도착하게 된다.

원래 서오릉은 ‘서쪽에 다섯 개의 능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오릉에는 5릉(경릉·창릉·익릉·명릉·홍릉), 2원(순창원·수경원), 1묘(대빈묘)가



대빈묘 전경

있어서 동구릉 다음으로 큰 조선 왕실의 가족묘를 이루고 있다. 경릉은 덕종과 소혜왕후 한씨(인수 대비), 창릉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 익릉은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 김씨, 명릉은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와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 홍릉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 서씨의 능이다. 또 순창원에는 명종의 맏아들 순회세자와 그의 부인 윤씨가, 수경원에는 사도세자의 어머니 선희궁 영빈 이씨가, 대빈묘에는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가 묻혀 있다.

숙종의 후궁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묘인 대빈묘는 거의 평지에 가까운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데, 봉분 뒤에 곡장(曲牆)을 두르고, 혼유석과 비석, 망주석(望柱石) 1쌍, 연꽃무늬의 장명등, 그리고 문인석 1쌍이 서 있을 뿐 나머지 석물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사대부 묘와 같은 분위기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묘 바로 뒤로 사람의 발바닥 모양 같이 생긴 바위가 있고, 그 틈에 난 소나무가 주는 느낌이 재미있다.

대빈묘(大嬪墓)는 원래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에 있었으나, 1970년에 이곳으로 이장되었다.



대빈묘 장명등과 봉분

3. 묘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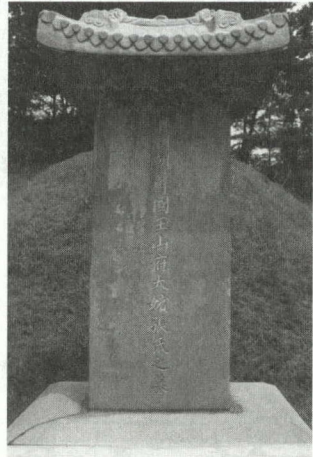
대빈묘의 주인인 희빈 장씨[?~1701(숙종 27)]는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빈이다. 본관은 인동(仁同)으로 아버지는 장형(張炯)이며, 역관(驛官) 장현(張炫)의 종질녀이다. 어려서 나인(內人)으로 궁에 들어가 숙종의 총애를 받았다.

1686년(숙종 12) 숙원(淑媛)이 되었으며, 1688년 소의(昭儀)로 있을 때 왕자 윤(昀: 뒤의 경종)을 낳았다. 이듬해 1월 숙종이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의 반대를 물리치고 윤을 원자로 책봉함에 따라 내명부 정1품 희빈으로 승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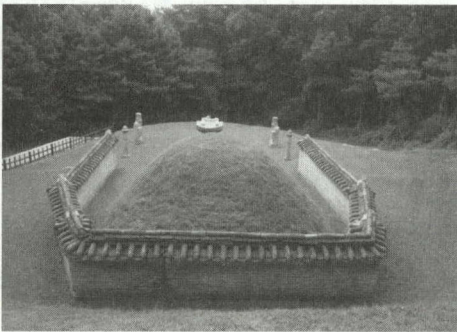
그해 2월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실권하고 남인이 집권했으며, 7월에는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가 폐위되었다. 1690년 윤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왕비로 책립되었다. 1694년 서인 김춘택(金春澤)·한중혁(韓重赫) 등의 민비복위운동을 계기로 남인이 옥사를 일으켰으나

숙종이 오히려 남인을 제거하고 서인을 재집권시킨 갑술환국이 일어났다. 그해 4월 민비가 복위됨에 따라 다시 희빈으로 밀려났고, 오빠 장희재(張希載)와 함께 복위를 도모했으나 무산되었다.

1701년 민비가 병으로 죽자, 궁인·무녀 등과 함께 민비를 무고



대빈묘 묘비석



뒤에서 바라본 대빈묘 전경

(巫蠱)했다는 서인의 탄핵을 받고 사사(賜死)되었다. 이때 희빈장씨 및 남인에게 동정적이었던 남구만(南九萬)·최석정(崔錫鼎) 등 소론도 몰락하게 되고 노론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 숙종은 이후 빈을 비로 승격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다.

4.王妃冊封玉冊文

《肅宗實錄》卷22,肅宗 16年 10月 22日(己卯)

冊禧嬪張氏爲王妃 前年有是命 而因未經莊烈王后祥禫 故未行冊禮 至是始設都監而行之 其玉冊文曰 王若曰 天地合而萬物資始 夫婦之倫成 宵晝分而二曜迭明 內外之教備 茲故帝王之治 必賴后妃之賢 毓慶堯門 魯經垂貴母之象 思媚京室 周雅著亂臣之休 今幸選德於宮闈 克叶求配於寤寐 肆正顯號 誕舉緝儀 咨爾張氏 夙稟令姿 早擒芳訓 祥徵夢日 姚翁歎天下之貴人 史記崩沙 建公卜元城之聖女 惟其儀度之中矩 是以惠問之揚芬 申儆戒於鷄鳴 不顯惟德 播聲詩於麟趾 受祿于天 值此壺位之纔虛 聿見景命之允屬 龜章翟芾 象服斯煌 日吉辰良 大禮乃舉 茲遣臣議政府領議政 權大運 行兵曹判書 閔黯 持節備禮 冊命爲王妃 於戲 衍本支於百世 基風化於四方 念驕侈常戒於易生 非節儉則奚以持滿 處崇高而愈謙畏 慎厥身修 承宗祧而主蘋蘩 裨我孝理 勉保黃裳之吉 永貽彤管之譽 故茲教示 想宜知悉【大提學 閔黯 製進】

5. 王妃册封敕命文

王若曰 震宮毓祥 纔行册儲之典 坤極宣號 肆舉建妃之儀 欲資陰功 寔本風化 咨爾張氏 動遵內則 德冠後宮 性稟幽閑 足儷美於南國 躬候溫清 曾逮事於東朝 何幸奉櫛之餘 果有完釵之慶 宗社之重有托 天佑家邦 春秋之義可稽 母以子貴 適當中饋之曠 允叶內壺之尊 念成廟故事之猶存 有足徵者 待商宗喪制之既免 在禮當然 茲涓孟冬之辰 爰正長秋之位 茲遣臣議政府領議政 權大運 行兵曹判書 閔黯 持節備禮 册命爲王妃 龜章翟芾 備典册而生耀 玉匣珠襦 隆物采而增煥 於戲 守位而必敬必戒 助治而克儉克勤 麟趾播休 國勢可固於磐石 鷄鳴進警 諫言佇聞於入宮 毋替妊姒之徽音 永膺祖宗之休烈 故茲教示 想宜知悉 【弘文提學 柳命天 製進】

6. 옥산부대빈추봉

《景宗修正實錄》卷3, 경종 2년 10월 10일(임술)

追尊張氏 爲玉山府大嬪 張氏 上所生母也 禮曹講定追報節目, 條列以進曰 擇吉日改題神主 令承文院 差送題主官 祠宇間架 制度 一如 愼妃祠宇 物力 令戶兵曹磨鍊 別定監役官造成 四仲朔 時祭 用初丁日 與忌祭竝行於祠宇 四節日祭 行於墓所 凡祭皆令內侍 無祝設行 祭需 令該曹該廳 如 仁嬪 例封進 墓所守直軍 定十五名 給復除役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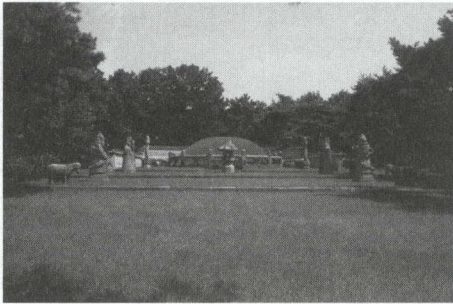
회 묘(懷墓)

1. 연혁

묘 주 : 연산군 생모 폐비 윤씨
위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2호
봉묘연대 : 1489년(성종 20)
전묘연대 : 1965년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문산으로 가는 1번 국도를 따라 통일로를 달려가다 보면 고양시 삼송동 4거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356번 지방도로를 따라 조금 가면 농협대학 입구 삼거리에 이른다. 농협대학 안내 표지판과 함께 쓰이는 서삼릉 표시를 따라 달려가면 영화와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멋들어진 포플러나무 가로수길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이곳을 지나면 서삼릉 입구이다.



회묘 전경

원(孝昌園) 등 3원과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인 폐비 윤씨의 묘인 회묘(懷墓)를 비롯해 조선 말기까지의 후궁·대군·군·공주·옹주 등 46묘(墓), 태실 54기(基)가 들어서 있다. 서삼릉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 왕실의 집장묘가 된 셈이다.

성종의 둘째 부인이자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의 묘인 회묘는 서삼릉의 가장 안쪽, 비공개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윤씨는 성종보다 열 두 살 연상이지만 빼어난 미모로 성종 4년(1473) 숙의에 봉해지고 원비 공혜왕후가 승하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 해 연산군을 낳았으나 심한 투기와 모함으로 폐위되어 사약을 받았다. 연산군 즉위 후를 생각한 성종은 1489년 묘비조차 없던 윤씨 묘에 ‘윤씨지묘’라는 묘비를 세우도록 허락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국장기간에 연산군은 폐비 윤씨의 자식임을 알게 된다. 1504년 연산군은 윤씨의 묘를 능으로 격상시켜, 회묘에서 회릉으로 고쳤다. 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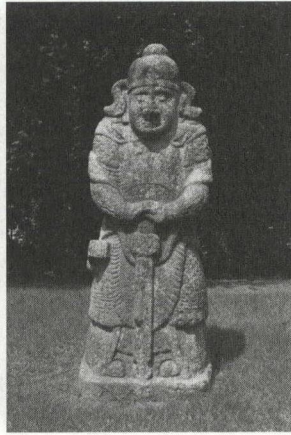
서삼릉은 도성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릉(禧陵), 효릉(孝陵), 예릉(睿陵)이 이곳에 있다. 이 능역에는 이외에 소현세자의 소경원(昭慶園), 장조의 아들 의소세손의 의령원(懿寧園),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효창원(孝昌園) 등 3원과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인 폐비 윤씨의 묘인 회묘(懷墓)를 비롯해 조선 말기까지의 후궁·대군·군·공주·옹주 등 46묘(墓), 태실 54기(基)가 들어서 있다. 서삼릉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 왕실의 집장묘가 된 셈이다.



회묘 장명등과 봉분



회묘 문인석



회묘 문인석

석물을 왕릉의 격식에 맞게 조성하고, 제향 절차를 종묘에 위패를 모신 역대 왕들의 제사 절차에 맞추도록 했다. 1506년 연산군이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자 회릉은 다시 회묘로 격하되지만 겉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회묘는 원래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었으나 1969년 10월 25일 경희대학교 공사때 이곳 서삼릉 구역으로 천모했다. 회묘가 있던 자리는 현재 경희의료원이 있다. 외따로 있던 회묘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은, 당시 왕실 묘를 대규모로 옮겨버린 도시 개발 바람 덕분이다.

회묘는 난간석을 두른 봉분 주위를 호랑이와 양이 에워싸고 있으며, 그 앞에 망주석 한쌍과 장명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왕릉급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인석과 무인석 각각 1쌍씩과 석마 2쌍이 배치되어 있어 마치 왕릉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문무인석의 얼굴은 조선 초기 제작된 어느 것보다 손색없을 정도로 사실감있게 표현되어 있다.

3. 묘주 소개



회묘 장명등

후세에 ‘폐비 윤씨(廢妃 尹氏, 1445?~1482)’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알려진 윤씨는 판봉상시사 윤기견의 딸로,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두 번째 왕비이자, 제10대 왕 연산군의 어머니이다. 본관은 함안이다. 원래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대궐에 들어갔으나 성종 5년에 왕후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숙의였던 윤씨가 아들을 낳아 원자가 되었으므로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왕비 윤씨는 숙의로 있을 때부터 임금 성종의 총애를 받기 위하여 다른 후궁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유별나게 투기가 심했다. 특히 원자를 낳은 뒤부터는 더욱 교만하고 방자한 행동을 일삼아 왕비로서 갖추어야 될 덕을 잃기 시작했다.

윤씨가 왕비로 책봉된 이후에도 궁중에는 ‘익명서’라 일컫는 투서와 온갖 비방 모략이 왕비 윤씨에게 집중되었고 왕비 윤씨와 연관되어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 중 일부는 명확한 사실로 판명되어 성종의 노여움을 여러 번 샀다.

그때마다 성종은 왕비 윤씨의 너그럽지 못한 성격에 대해 주의를 주었으나, 왕비 윤씨가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포악스러워지자 성종은 그녀가 왕비로 책봉된 지 3년째가 되는 성종 10년(1479) 왕비 윤씨를 서민 윤씨로 폐출시켜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왕비 윤씨가 폐출된 뒤에도 윤씨에 대한 휘방과 증상이 끊이지 않고 더욱이 그녀가 낳은 원자가 곧 세자로 책봉된다 하니 세자의 생모가 살아 있다가 나중에 세자가 임금으로 등극하면 크게 양값음을 당할까 두려워한 사람들은 임금에게 그녀에 관한 불리한 고변을 하였다. 드디어 성종 13년(1482), 윤씨가 왕비로 책봉된 지 만 6년, 폐출 당한 지 3년 만에 성종은 사약을 내리게 되고 폐비 윤씨는 세상을 떠난다.

그때 성종은 ‘폐비 윤씨의 성품이 어질지 못하고 음험하며 또한 행실이 바르지 못해 왕실의 장래를 위하여 부득이 사약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전지를 내렸다.

또한 예조(禮曹)에는 폐비 윤씨가 소원하던 대로 건원릉 가는 길에 묘를 쓰게 하고 비석에는 ‘윤씨지묘’라고 쓰게 했다. 그러니까 묘는 일반 서민들의 묘나 다름없이 하였지만 성종은 ‘묘지기 두 사람을 배치하여 묘를 돌보게 하고 소재지 관원들로 하여금 한식, 단오, 추석 때마다 그녀의 묘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되 나중에 세자가 왕위에 오르더라도 그것만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는 교지를 함께 내렸다.

그러나 윤씨의 아들인 원자가 윤씨가 죽은 다음 해에 세자가 되고 19세에 성종의 대를 이어 조선왕조 제10대 임금으로 왕위에 오른 후부터 폐비된 내는 복수의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다.

연산군은 처음 왕위에 오른 후 왕권을 강력히 다지고 전국에서 널리 인재를 구하여 등용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영주(英主)의 칭호를 듣기도 하였다. 하지만 차츰 자신의 생모인 윤씨에 대한 연민의 정이 깊어지자 왕의 가슴에는 원망과 분노가 들끓었다.

연산군 2년(1496) 죽은 생모를 그리며 효사묘(孝思廟)라는 사묘(私廟)을 짓고, 아울러 폐비 윤씨의 묘에 봉분을 수리하여 회묘(懷廟), 다시말해 ‘슬픈

사연을 간직한 묘'라는 감회서린 묘 이름을 연산군이 손수 지어 받쳤다.

연산군은 태평성대가 이어지고 왕권 또한 강력해지자 차츰 향락과 횡포를 부리게 되었고 임금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을 유배를 보내거나 처벌을 일삼았다. 자연히 임금 연산군 주위에는 간사한 무리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그들의 고변에 의해 연산군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연산군 10년(1504) 이른바 갑자사화(甲子士禍)라 칭하는 복수사건은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폐출, 죽음과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 사형과 유배형을 내렸고, 심지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시신까지도 땅에서 파내어 형을 가하는 가혹한 복수가 이어졌다. 그 후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를 '제현왕후'라 추모하고 회묘를 '회릉'으로 고치고, 효사묘는 혜안전으로 승격시켰다.

원래 왕과 왕비의 묘를 가리켜 '능'이라 하고 왕의 생모나 왕세자, 세자빈, 왕세손의 묘를 '원(園)'이라 하며, 대군이나 군, 공주나 옹주, 그리고 후궁들의 묘는 그냥 '묘(墓)'라 칭하는 것이 관례였건만 연산군은 생모 윤씨의 묘를 능으로 승격하였으며 그 이름도 회묘에서 회릉으로 고쳤던 것이다.

또한 능의 석물(石物) 또한 왕릉의 능묘형식을 따라 하게 하고, 제향 절차를 종묘에 위패를 모신 역대 임금님의 제사 절차에 맞추도록 했다.

그러나 2년 뒤 연산군은 난잡스럽고 포악스런 군주의 전횡에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일으킨 중종반정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뒤 회릉은 다시 회묘로 강봉되었다.

또한 혜안전은 철폐되어 폐비 윤씨의 위패는 묘 곁에 묻혀 있었으나, 1969년 10월 서삼릉으로 이전되고 이제는 옛날 회묘가 있었던 표석만이 수풀 속에 쓸쓸하게 남아있다.

4. 왕비책봉교명문

《成宗實錄》卷70, 成宗 7年 8月 9日(己卯)

上御 仁政殿 遣密城君琛 左贊成盧思慎 齋教命冊寶 封淑儀尹氏爲中宮 其教命曰 古昔哲王之理國家 必先內治 所以正其本也 粵予冲眇 纘承大統 永惟負荷之重 必資內佐之賢 壺位中缺 越有歲年 茲奉大王大妃懿旨 宮闈不可以無主 宜簡賢淑以總內政 咨爾 尹氏 早膺德選 久處宮掖 貞信勤儉 謙恭自持 三宮所眷重 爰舉彝章 冊爲王妃 嗚呼 天地定位 萬物以生 君后合德 萬化攸基 宜服寵命 終始一德敬之哉

5. 왕비책봉책문

《成宗實錄》卷70, 成宗 7年 8月 9日(己卯)

乾元生物 必待坤順之承 王者御邦 實賴陰教之助 肆循成憲 用舉徽稱 惟爾 尹氏 稟性柔嘉 宅心淵靜 雞鳴警戒 允邁 齊妃之賢 葛覃儉勤 遠追周妣之德 眷旣隆於慈極 望亦協於母儀 宜加寵章 以正位號 於戲 樛木恩逮 基風化於二南 瓜瓞慶綿 固本支於百世

4. 회묘관련기록

《燕山君日記》卷52, 燕山君 10年 3月 25日(丙戌)

下教書曰 春秋之義 母以子貴 追崇之典 著在 漢史 念我 懷墓 始以德

選 正位椒闈 終罹讒口 困於群小 其在丁酉 欲廢中止 旋復鼓瑟之和 至
有弄璋之慶 若真失德 豈有是事 厥後織構日甚 不能自明 廢在私第 遂至
大變 當初內間沮之於中 大臣 臺諫爭之於外 則以先王聖明 且有寡躬
未必無回天之力 安有投杼之疑哉 予在幼沖 罔有聞知 叨承大統 十年于
茲 究問厥由 始得其實 終天之痛 曷有其極 是用廣收群議 追尊爲 齊獻
王后 陞墓爲陵 其構成大故者 尚在先朝後宮之列 卽置罪律 其生其死視
爲庶人 庶幾正爲邪之辟 雪在天之冤 以伸予哀慕罔極之情